

시론



여동구
전라남도도민감사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살을 에이는 바람이 몰아치고 간밤에 내린 눈이 녹아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한낮인데도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 가기 어려운 겨울이 다가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스키를 즐기고, 눈이 내리면 따뜻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즐기겠지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계절이 겨울이다.

눈이 내리면 연인들은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설레임까지는 좋다고 하자, 그러나 그 설레임은 설레임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찍부터 남자를 알아 임신까지 하게 된 여자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 경험이 빠르고 이성을 일찍 사귀게 되게 된다.

이성과 자주 만나다 보니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까지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혼자 살기도 힘이 드는데 아이까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어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다.

남자 친구를 놀라서 더 이상 연락을 끊어 버리고 혼자 끙끙 앓다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경우를 보면 아이를 낳는 미혼모도 잘못이지만 그 아이는 무슨 죄라는 말인가? 평생을 엄마·아빠의 존재도 모른채 이 험난한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 가야 할지를 생각 해 보면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그나마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행이지만, 길거리나 화장실 등지에 세상을 맞이하는 경우는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팔자가 정해졌다는게 설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책임지지 못할 남·여간의 정이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생명을 마음 아프게 평생을 마음의 허전함으로 가혹하게 살아 가게 만드는 것은 큰 죄악이다. 부모 두 사람이 반듯하게 있어도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낳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 가야 한다는 사실은 크나큰 고통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모를까, 하지 않으려면 남녀간의 관계는 냉정하게 끝내야 한다.

‘베이비 박스’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아이 상자라는 말이다. 아이가 상자에 놓여진다. 상자는 물건을 담은 공간인데, 베이비 방이라고 하면 안 될까? 한 순간만이라도 아이에게 사람 대접을 해 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해 보면 좋겠다.

한국 최초의 베이비 박스는 2009년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교회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뻔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이 세상에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아기는 한명도 없다’라는 기치 아래 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고 버려지는 아이들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다.

아이를 두고 간 미혼모의 편지를 소개 해 본다.

‘엄마는 네가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써 널 보내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너를 많이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해 줄 자신이 없어서, 많이 사랑하지만 좋은 양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는 거야. 많이 미안해. 나처럼 못난 사람의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 엄마가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너한테 해 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평생 이 못난 나를 용서해 주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평생 미워해 줘.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웃으며 살아 가 줘. 엄마가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

현장칼럼



박종열
함평경찰서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모 의료기관의 내부 공지 형식인 것처럼 꾸며 ‘코로나19 현황-18일 18시 기준 확진자 412명’이라는 가짜뉴스가 SNS에 등장했다. 이 메시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경찰청은 22일 “유포된 허위사실, 유훈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불법행위를 확인 중”이라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중간 유통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를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130건·204명), 개인정보 유출(40건·65명)로 170건을 수사해 269명을 검거하고, 94건은 계속 내·수사중에 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정부가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확진자를 축소 발표했다는 음모론이 인터넷을 점령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〇〇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격리수용하고 있으나 정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나는 어떤 병원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은밀한 동네 소문처럼 그럴듯한 가짜뉴스는 점차 과장되고 변질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로 둔갑한다.

결국 가짜뉴스는 피해자를 만든다.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쓴 등 장인물도, 거짓 정보에 속은 소비자도 피해자다.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으며, 뒤늦게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해도 그 안타까운 진실은 잔인하게 외면당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착오를 쉽게 인

정하지 않은 채 한번 믿어버린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더 단단하게 뿌리내려버리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횃수를 늘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란 오명의 유투버들도 가짜뉴스의 전파자들이다. 일부 유명 유투버들은 조회 수에 현혹돼 자극적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명예훼손 등으로 개별 유투버를 고소하지 않으면 마땅한 자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유투버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턱없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들은 이슈가 생기면 콘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 조회 수를 쫓기는 방식을 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폭로로 대표되는 한쪽 주장의 일방적인 제보에 이르는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더욱 자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유투브가 대안 미디어의 선두로 꼽히지만, 최근 생산되는 일부 콘텐츠들은 기존 미디어들의 약속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먹이로 점점 커져가는 인포데믹(Infodemic)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기에 더욱 위험하다. 잘못된 정보는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해 우물,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공동체를 위협해 결국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검증된 정확한 뉴스와 믿을 만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인터넷에서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말고 당국의 수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쏟아도 힘든 판에 가짜뉴스의 범람은 백해무익이다.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방역업무 방해는 물론 공동체를 해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는 또 다른 악성 바이러스임이 분명하다.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찰의 단속 못지않게 시민들도 가짜뉴스를 접하면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현장칼럼



김성철
광주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초기 사용자도 중요하지만 화재 초기 또는 작은 불이 아니라면 이후 연기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후에 119 신고와 소화기 사용을 통한 화재 진화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대피를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하는 화재 상황에서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게 비상구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와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

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소방에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자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 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장치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

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사항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은폐나 빠지며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예고 없이 찾아오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양병신년 용병일일(養兵十年 用兵一日)’이란 옛말이 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로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같은 예로, 영국의 워블던 테니스장은 일 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

해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한다.

단 2주간의 대회를 위해 일 년 내내 준비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며 다른 나라에서도 스포츠 중계가 진행될 만큼 유명하고 권위 있는 대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고 힘든 고비를 모면한다.’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은 갑작스러운 난관에 대처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뜻하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화재와 재난을 대비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도 교토삼굴의 자세로 평소 화재 발생 시에 대응요령 및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비상구의 위치와 대피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갑작스러운 화재 등 재난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아특별 배제 국민의힘, 호남 안중에 없다

돌이켜보면 제1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5·18 영령에 무릎 꿇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호남 동행을 내세우며 연달아 방문해 입법과 예산을 쟁기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에도 그랬다.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얼마가지 않았다. 광주의 핵심 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결국에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당초부터 국가소속기관인 문화전당이 2015년 아특별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법안화로 바뀌게 된 상황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인데 탄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문화예술소위원회장이 수차례 소위 논의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들을 물리치고 말았다.

이유인즉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고용문제 등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고용승계한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아 비용추계대상 법안이 아니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

명히 했다.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 개관한 지 5년 된 신생기관을 법안화하려는 알팍한 잔꾀”로 규정했다.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김종인 개인”이라고 양향자 의원은 일갈했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번 회기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매년 5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정말로 국민의힘은 문화전당의 영속적인 파행, 유명무실한 시설로 전략을 바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책사업이며, 처음부터 문화전당은 정부 소속이었다.

당장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설득력 없는 정략적인 구실을 내던지고, 광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의 아이론’이 되지 않도록 더욱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늦지 않았으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줄기차게 공공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해 왔지만 시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지난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이 시장은 앞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우를, 혁신 의지가 부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운영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장들이 물러나고 조직 내부의 내용 및 각종 채용 비리, 부당한 수당 지급 등 만연한 일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적인 요구가 제기됐고, 일부 경찰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시청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성찰과 반성의 자리는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이 시장의 메시지는 단호했고, 기관장들은 시민이 믿고 바라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확실하게 시민의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혁신은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의 파괴에서 출발한다며 TF팀을 꾸려 인사, 조직, 청렴 등 전 분야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정밀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했다. 하지만 별반 변화가 없었다.

일상화된 코로나19에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는데 공직자의 부도덕한 처신은 도를 넘어치고 있다. 시민들의 시선 쉼날, 그 자체다.

산하 25개 공공기관은 이번 워크숍에서 각기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조직혁신, 코로나 시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영혁신, 조직화합을 위한 노사상생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방정부는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선공후사의 강력한 혁신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재차 촉구한다.

시장·군수님은 서울 출장중

취재수첩



임채만

(지역특집부 부장대우)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한 달은 수능을 앞둔 고3학생에 버금가는 24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을 집 드나들듯 자주 왕래하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지자체에 내려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심의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장들은 예산팀 직원들과 ‘원팀’을 이뤄 현안 사업 당위성과 명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톨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남 22개 시장·군수들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타 지자체보다

사업의 당위성과 명분에서 밀리면 국비 지원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 때문에 현안 사업이 비교 우위에 있음을 포함한 설득력있는 포트폴리오 작성은 기본이다. 가끔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내세워 읍소 작전도 필요하다.

현재 고행화와 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남 각 지자체는 국비 지원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없다.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박람회 개최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설파했다. ‘정원의 도시’로 성공한 순천시가 3년 후 두 번째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김종석 목포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만나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 개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처럼 전남 각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운명이 걸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비 성과는 2년 후 지방선거 때 공적 자료로 활용되면서 지역민의 표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남 각 지자체가 예산 정국에서 어떤 성적표를 낼 지 궁금하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朴俊洙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李庚秀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정지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채운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진부 650-2086	기획사업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